

1991년 國際土質 및 基礎工學會 會員國 代表者會議 (ISSMFE Council Meeting) 參加 報告

김 상 규*

회원국 대표자 회의

국제 토질 및 기초공학회 회원국 대표자회의 (ISSMFE Council Meeting)은 매 2년마다 한번씩 열린다. 2년전 회의는 제 12차 국제 토질 및 기초공학회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던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되었으며, 그 당시 다음 회의의 개최지를 두고 3개국이 경합하였으나 투표에 의하여 유럽지역 회의가 개최되는 이태리 피렌체로 결정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본인과 본학회 부회장 정형식 교수가 참가하게 되었다. 대표자회의에는 各 國家學會(National Society)에서 2명씩의 대표가 참가하며, 그 중 1명만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꽃과 예술의 도시 피렌체는 걸어서 시내를 두루 구경할 수 있는 조그마한 도시이다. 이 도시는 聖堂과 美術館 그리고 상점 아니면 호텔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관광도시로 발전된 것 같고, 거리는 관광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벼서 어디서나 배낭을 짊어진 남녀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이 도시에는 1,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큰 國際會議場이 서로 이웃하여 두군데나 있는데, 한쪽에서는 유럽지역 토질 및 기초공학회의가 개최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유럽지역 地質工學會議가 동시에 개최되었다. 우리가 회의를 하였던 곳은 이 중 Palazzo del Congressi의

한 홀을 사용하였으며, 나중에 잠깐 말씀드릴 유럽지역 토질 및 기초공학회의는 이 홀의 뒷편에 있는 큰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강당의 양 쪽에는 참석자 모두가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과 커피숍이 있으며, 또 그 건물내에는 작은 방들이 여러 개 있어서 session room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회의장 앞에는 exhibition room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3층의 넓다란 부속건물이 있었으며, 참석자들은 그곳으로 부터 5분내외 거리에 散在해 있는 작은 규모의 호텔에서 숙박하게 되어 있다. 로마제국의 元老會議의 전통을 繼承했음인지 미국이나 일본에서 보던 호텔에서의 회의장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볼 수 있었다.

대표자회의는 유럽지역 국제 토질 및 기초공학회 회의가 시작되기 하루전인 5월 26일 8:30부터 18:30까지 국제 토질 및 기초공학회 회장 Morgenstern교수를 議長으로 모시고 사무총장 Parry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국제 지질공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Engineering Geology)회장과 국제암반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Rock Mechanics)의 회장이 참석하였고, 또 技術委員會(Technical Committee)의 위원장들이 옵서버로서 참석하였다. 토의 안건이 회의 1개월전에 배포되었으므로 각국 대표들은 미리 토의준비를 할수 있게 배려되었다.

여기서는 이 회의에서 논의된 報告 및 決議事項을 항목별로 나누어 요점만을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 정회원, 동국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교수, 당학회 회장.

1. 전 국제회원은 61개국 18,065명이고 최대 회원수를 가진 나라는 미국의 4,730명이며, 地域別로서는 유럽의 7,043명이 가장 많다. 우리나라는 60명이 가입하고 있다.

2. 현재 국제학회에는 Instrumentation, Telemetry and Data Processing(TC 1) 등 27개의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TC)가 활동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의 학술활동과 심포지움의 개최계획이 보고되었다.

3. 국제토질 및 기초공학회, 국제지질공학회 및 국제암반학회의 세 사무총장으로 구성되는 Permanent Coordinating Secretariat가 구성되어(PCS의 사무총장은 De Beer 교수), 상충되는 學術活動의 조정, 기술위원회 활동에 대한 정보교환, 국제회의 및 地域會議(Regional Conference) 日字 調整, 각 국제학회장의 정기적인 회의의 개최 등의 일을 맡고 있다.

4. 국제토질 및 기초공학회 산하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 6개의 지역회의가 있고 각 지역회의의 대표가 국제학회의 부회장이 된다. 각 부회장은 해당지역의 학술 활동을 보고하였는데,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일본 동경대학의 이시하라 교수가 보고하였다. 작년에 우리 학회가 일본 토질공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던 “도심지에서의 터널과 굴착에 관한 심포지움”의 학술행사와, 금년 1월에 제1회 青年 地盤工學會議(Young Geotechnical Engineering Conference)가 일본 토질공학회의 지원을 받고 방콕 AIT에서 개최되었다는 것, 또한 금년 12월에는 방콕에서 제9회 아시아 지역 토질 및 기초공학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는 것 등이 보고되었다.

5. 1997년도 국제토질 및 기초공학회의의 개최지는 2년전부터 독일과 호주의 경합으로 관심을 끌었으나, 투표결과 묘하게도 21 : 21의 백중세가 되어 부득이 양국 대표가 동전을 던져 판가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幸運의 女神은 독일 함브르크의 편을 들었다. 호주 지반공학회의 집요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이번까지 3번이나 실패한 사실에 대하여 대표자 모두가 애석하게 생각하였다.

6. Mercy Lecture가 새로 창설되었다. 이것은 영국 Netlon회사의 財政支援를 받아 특별히 지

정된 演士가 여러 나라에 출장하여 geotextile에 대한 특별강의를 하는 세계 순방 강연계획이다. 資金은 매년 8,000파운드씩 Netlon사가 최소 10년간 부담하며, 최초의 特講教授는 미국의 Koerner교수로 결정되었다. 1992년에는 2월과 5월사이에 미국에서는 워싱턴, 영국에서는 런던, 일본에서는 시고꾸 또는 규슈에서 강의하게 된다.

7. UN의 결의에 의하여 1990년도부터 自然災害 減免 10個年 計劃(International Decade for Natureal Disaster Reduction)이 실행되고 있으며, 각국마다 National committee 또는 Focal point를 설치하여 이것의 계획과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설부 수자원국 방재과가 Focal point로 되어 있다.

8. 각 회원국이 부담하는 국제학회 회비는 國民總生産을 기준으로 하여 회비를 산출하는 계수를 정하되, 1인당 GNP를 참고하여 가감하도록 수정제안되었다. 동시에 개인 회비는 15%인상하도록 동의안이 제출되었다. 동구권 대표들에 의해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으나 修正議案이 다수결에 의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통과된 적용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각국 학회가 부담하는 會費} = 195GN + 6M \\ (\text{스위스 프랑})$$

여기서 GN=GNP에 따라 각국에 적용하는 계수. 한국은 6임. 참고 : 일본 17, 미국 16, 소련 10.

$$M = \text{會員數}$$

통과된 회비인상은 1992년부터 적용된다.

9. 1994년 1월 5일부터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제13차 국제토질 및 기초공학회의의 組織委員長 Gulhati교수가 회의준비 상황을 보고하였다. 다음의 회원국 대표자회의는 인도 뉴델리에서 국제회의가 시작되는 전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10. 1989년도 및 1990년도 監事報告가 있었다. 뒤이어 예산안이 제시되었는데 국제토질 및 기초공학회의의 예산은 1994년까지의 豫算을 편성하여 보고하였다. 참고로 1994년도의 예산은 회비와 이자 등 모두 포함해서 84,000파운드로 편성되어 있다.

제10차 유럽지역 토질 및 기초공학회

국제토질 및 기초공학회 회원국 대표자 회의 다음 날부터 4일간 유럽지역 회의가 시작되었으므로, 가장 수준이 높은 이 회의에 꼭 참석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서 1주일 가량 더 피렌체에 머물게 되었다. 이번 회의의 主題는 흙의 變形과 構造物의 變位(Deformation of Soils and Displacements of Structures)이었으며, 회의는 전체적으로 보아 Janbu교수, Hoeg박사 등 연사 다섯분의 초청강연과, 5개의 main session, 그리고 10개의 discussion session으로 구성되었다. 낮의 연속된 회의후의 저녁행사는 會議 前日 리셉션, 제1일 콘서트, 제2일 올간 콘서트, 제3일 연회, 제4일 축구 피레이드 등 연일 계속되었다. 그러나 회의의 높은 수준과 알찬 회의운영에도 불구하고 참가자의 登錄費가 1,050,000리라(약 560,000원)로 높게 책정된 것은 저소득 국민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다.

4일 동안의 회의일정중 초청강연은 매일 한 분 또는 두분이 행하였다. “How the Dilatancy of Soils Affects Their Behavior”라는 제목으로 Wroth교수가 맡았던 초청강연은 이 분의 갑작

스런 逝去로 Oxford대학에 있는 그의 제자가 대신하였으나 名講義로 참가자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았다. 초청강연집은 Proceedings의 제4권으로 내년쯤 출간될 것이다.

Main session에서는 discussion leader가 약 한시간 동안 해당분야의 投稿論文에 대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session을 세분하여 토의가 진행되었다. discussion session은 여러개로 나누어지므로 자연히 병렬로 진행된다. 여기서 토의된 내용은 초청강연의 내용과 함께 제4권으로 출간되리라고 생각한다. 이 회의를 통해서 느낀 것은 이름있는 저명한 학자들이 끝까지 회의에 출석하고 討議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었다.

회의장 입구에 있는 3층 건물의 넓은 공간에 展示室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면서 충분히 둘러 볼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 유감이었다. 잠깐 둘러 본 바로는 Piezocone, pressuremeter 등 새로 개발된 현장 測定裝備와 자동화 기록장치, geotextile제품 등이 많이 출품되었다고 기억된다.

우리가 국제학회에 가입한 이상, 불원간 우리나라로 국제회의를 유치하게 될 것이다. 많은 회원들이 외국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의 구성과 진행방법, 행사계획등을 자세히 보고 배워 왔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였다.